

주역의 生態易學과 그 生命의식

김연재

공주대학교 동양학과 조교수

< 목 차 >

- I. 생태학과 문제의식
 - II. 易觀과 생태인식
 - 1. 역 개념과 變通의 원리
 - 2. 通觀과 인식과정
 - III. 易象과 생태표상
 - 1. 天地와 생태적 구도
 - 2. 乾坤과 음양의 생명성
 - IV. 易道와 생태윤리
 - 1. 易道와 人間觀
 - 2. 자아실현과 생태윤리
 - V. 생태역학과 인문주의적 논단
-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생태역학(Eco-Changeology), 변통(Penetration of Change), 역상(Symbol of Change), 역도(Way of Change), 생태인식(Ecological Recognition), 생태표상 (Ecological Image), 생태윤리(Ecological Ethics)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생명체의 존재방식을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주역』의 세계관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방법론적 토대를 ‘생태역학(Eco-Changeology)’ 이라고 부른다. ‘생태역학’은 우주의 생명정신과 이것에 입각한 자연계의 변화양상에 관한 이론적 사유방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우주의 시공간적 구도와 그 구현체로서의 자연계의 내재적 역동성에 주목하는 역학적 사유를 이해하고, 생명공동체의 품이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준거가 된다는 점을 밝히는 작업이다. 이는 자연 생태계를 자생적 질서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체로서의 화합적 차원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그러므로 생태학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학문이라면, 생태역학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과 가치론적 의미를 모색하는 방법론을 지닌다. 생태역학에 관한 『주역』의 논점으로는 변통관(變通觀), 천도관(天道觀), 태극음양관(太極陰陽觀), 적연감통관(寂然感通觀), 궁리진성관(窮理盡性觀) 등이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세계를 체현하는 일련의 방식, 즉 인식, 표상 및 구현의 단계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역관(易觀), 역상(易象) 및 역도(易道)의 과정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생태학적인 의미를 부가하여 생태인식, 생태표상 및 생태윤리라고 규정한다. 역관(易觀)의 방식은 우주가 변화하는 시공간적 이치를 인식하는 방법이고, 역상(易象)의 방식은

관찰한 내용을 상수(象數)의 척도로써 표상하는 방법이며, 역도(易道)의 방식은 이를 인간 내면 세계의 윤리적 문제로 고양시키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작동하는 일련의 전일론적(全一論的) 체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과 가치론적 강령의 문제, 즉 실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실재가 모두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생태역학은 단순히 자연생태계와 그 먹이사슬의 구조에 대한 탐구나 묘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구조와 질서의 생태적 그물망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화합적으로 이해하는 체험의 경지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생태역학은 우주의 생명정신의 올바른 인식과 인간의 생명정신의 정당한 발현에서 나온 이론적 사유체계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서 천일합일(天人合一)의 보편적 이념에 대한 인문주의적 담론의 일환이 된다.

I. 생태학과 문제의식

최근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태학적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고 진단하며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세계관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¹⁾ 그 중에서 환경윤리학이나 생태철학의 논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모든 생명체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존속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자연계의 유기적 그물망에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이른바 환경윤리학 혹은 생태철학의 세계관에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에 관한 논란이 있다.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간적 가치가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며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자연계로 대변되는 인간 주변의 모든 존재는 단순히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뿐이라고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을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부른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연을 무제한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했다. 그 결과,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함으로써 엔트로피(entropy)의 논리에 따라 장차 지구도 급속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단을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생태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문제는 기존의 사유체계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야기하고 있다. 서양의 기존의 인식은 집중적으로 인간중심주의와 기계론적 사유체계에 맞추어져있다. 즉 자연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필연이었고도 법칙적인 관계를 지닌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인간을 자연의 중심에 놓고 자연을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최근에 생태계의 존립에 대한 깊은

1)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인식하면서 환경론이나 생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생명중심주의와 같은 생태적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심층생태론(Deep Ecology)’이다. 이 이론은 네스(A. Naess)가 제기한 것으로서 생명중심적 평등(biocentric equality)을 내용으로 하는 자아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라는 동등한 본질을 지니며 따라서 서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는 한민희(1994), “환경철학의 세계관과 윤리 - 인간중심주의 대 생태중심주의,” 『철학연구』, 제35집, pp. 327-356; 최병두(2001), “심층생태학의 생물평등 및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정의,” 『공간과 사회』, 제16호, pp. 36-68을 참고할 것.

성찰, 그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위상에 관한 뼈저린 반성과 새로운 인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의식은 우리가 전일적(全一的) 세계관, 즉 자연과 인간이 상호공생의 조화로운 관계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인식에 따르면, 자연은 생태계의 전체이고 인간은 단지 존재의 한 부류로서만 의미를 지닌다.²⁾ 이는 인간 자신의 욕구가 자연계의 구성과 흐름에 얼마나 합치되는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에 기반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자기정체성과 자아실현과 같은 가치론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의 담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요한 관심사이다.³⁾ 동아시아의 문화와 사상의 원류에는 전통적으로 가치실현의 지향성으로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념이 있다. 그 저변에는 자연생태계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성과 양육의 과정에 관한 전일적(全一的) 사유방식이 깔려있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존재와 그 위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필연성과 당위성을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성과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식을 고양하고 참다운 삶을 실현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생명의 존재방식에 관한 문제의식 하에서 『주역』의 세계관을 생태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방법론적 토대를 ‘생태역학(生態易學)’이라고 부른다. ‘생태역학’은 우주의 생명정신과 이것에 입각한 자연계의 변화양상에 관한 이론적 사유방식을 가리킨다. 그것은 우주의 시공간적 구도와 그 구현체로서의 자연계의 내재적 역동성에 주목하는 역학적 사유를 이해하고, 생명공동체의 쉼이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준거가 된다는 점을 밝히는 작업이다. 이는 자연생태계를 자생적 질서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식의 화합적 차원을 추구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학의 논의가 생명의 본령을 중심으로 하여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생태역학은 자연생태계가 변화하는 모습에서 인간 삶의 본질적 측면을 어떻게 투영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생태학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학문이라면, 생태역학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 걸은 더 나아가 인간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과 가치론적 이해를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생

2) 양근석·이을호(1998), “東洋의 自然觀과 生態哲學의 理念 - 儒家思想을 中心으로,” 『국민윤리연구』, 제39호, p. 219.

3) 동아시아 담론 중의 하나인 전일론적 사유(全一論的 思惟)와 관련된 구체적 주제로는 유기체론, 관계론, 생명론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홍원식(2007)의 “동아시아 생태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동양철학연구』, 제51집, pp. 255-279), 박신환(1994)의 “유학의 유기체적 우주론”(『기술정보화 시대의 인간문제』, 현암사), 김병환(2005)의 “유가의 생명관 - 생성, 만물일체와 ‘살림’의 생명론”(『유교사상연구』, 제22집, pp. 307-336), 김세정(2003)의 “환경윤리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 - 유가철학을 중심으로”(『범한철학』, 제29집, pp. 57-87), 정병석(1998)의 “宇宙 大家庭의 生態論的 思惟와 天人合一의 生命倫理”(『유교사상연구』, 제10집, pp. 25-44), 최재목(2006)의 “동양철학에서 보는 ‘생명’의 의미 - ‘생명’의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 제46집, pp. 343-368), 최영진(1998)의 “『주역』의 인간관 : 생태학적 해석”(『철학연구』, 제21집, pp. 109-127), 전병술(2003)의 “동양철학의 인간중심적 환경윤리”(『중국학보』, 제47집, pp. 737-752), 한예원(2001)의 “양명학의 만물일체관에서 본 생명윤리”(『양명학』, 제6집, pp. 129-148) 등이 있다.

태역학은 단순히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과 같은 구조에 대한 인간의 탐구나 묘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운행질서와 같은 생태적 그물망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체험의 경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생태역학은 제일먼저 우주의 생명과 그 잠재력에 주목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과 변화를 거듭하는 신진대사(新陳代謝)를 진행한다. 이는 만사만물 사이의 관계 즉 개체와 전체의 상호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내재적 역량이 된다. 『주역』에서 제시한 ‘생명정신’의 소재가 여기에 있다. 우주의 생명정신에 따르면, 우주는 조화와 균형의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는 존재론적 구조체계이다. 여기에는 자연계의 전일적 과정, 즉 시간의 순환과 공간의 대칭을 수반하는 전일적 과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간을 포함한 만사만물의 생성, 변화 및 소멸의 과정이 있다. 그러므로 생태역학은 시간의 유동성과 공간의 점유성 및 양자의 역동적 관계를 인간이 어떻게 파악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립과 위상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의 생명정신의 소재에 관한 역학적 사유이다. 여기에는 자연계가 지닌 조화와 균형의 내재적 생명력의 기초 속에서 인간과 만사만물의 조화로운 공존의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세계의 함양과 같은 가치론적 문제까지도 담고 있는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역관(易觀)과 생태인식

1. 역(易) 개념과 변통(變通)의 원리

고대 사람들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야기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관한 분명한 판단과 확실한 결정을 보다 명확하게 담보하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영위하고자 했다. 이러한 태도에는 인간이 지나온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절박함과 당황, 그리고 다가올 예기치 못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투영되어 있다. 이는 인간 삶의 현실성에서 나온 기본적 욕구이자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본적 욕구이자 본능을 해소내지는 해결할 방법으로 창안해낸 것이 점술의 내용을 지닌 ‘역’ 관념이었다. 그러나 ‘역’ 관념은 단순히 점술의 의미에만 머물러있지 않았다. 인간 삶의 복잡다단한 문제들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은 세계 혹은 우주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로 확장되었다. 우주의 끝없는 시공간 속에서 만사만물은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한다. 인간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간다. 이 체험 속에서 인간이 한 존재 혹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갖게 되는 의식, 즉 우주 혹은 대자연의 생태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역’ 관념은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것은 만사만물의 존재형식, 즉 평형과 비평형, 연속과 불연속 등의 관계로 드러내는 생명의 존재방식을 포괄적으로 함유한 상위 관념으로서, 하늘과 땅, 네 계절의 변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과 같은 자연의 현상들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대변하게 되었다.

우선, 『주역』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대자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얻은 인간 경험의 총체적 산물이다. 여기에서는 자연생태계의 순환적 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의 이치 혹은 생명성의 원리에 주목한다. “하늘과 땅의 크나큰 덕은 생이라고 한다”⁴⁾ 혹은 “낳고 낳는 것을 일러 역이라고 한다”⁵⁾라고 말한다. ‘생(生)’이라는 말에는 우주에 있는 생명의 내재적 가치의 결정체로서, 자연의 원초성과 그 끊임없이 순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천체가 운행되는 질서를 ‘낳고 낳는 덕’ 즉 자연의 속성으로 보고 이것이 생명체의 본령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주역』의 세계관은 생명의 활력이라는 자생력을 지닌 천체의 운행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대자연 속에서 만사만물은 개별적으로는 서로 작용하는 구성요소의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개체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진행하는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유기적이면서도 전일적인 연관성을 지닌 자연생태계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는 스스로 형성하는 자기생산적 혹은 자기창조적이라는 의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처럼 만사만물이 ‘낳고 낳는’ 생성과 변화의 내용을 지닌 자연 개념을 시공간의 연속선상에서 표현한 것이 ‘우주’ 개념이다. 우주에는 인간을 포함한 만사만물의 존재론적 과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만사만물의 생성, 변화 및 소멸의 과정이다. 이는 천체의 움직임과 모든 존재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수반하는 전일적 과정이다. 인간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적 구조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론적 본질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주위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역’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인식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역의 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가 되며 또한 거듭 변천하는 데에 있다. 변하고 움직여서 머물지 않아 육허(동서남북상하)를 두루 흘러간다. 오르고 내려가는 데에 고정됨이 없으며 강건함과 유순함이 서로 바뀌므로 일정한 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변함이 가는 바에 있을 뿐이다.⁶⁾

‘역’ 개념에는 만사만물의 구성, 즉 유기체적 그물망에 대한 시각이 담겨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과 그러한 변화가 바로 인간인식의 지속성 혹은 항상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만사만물은 강건함과 유순함의 속성이 교차하는 것처럼 조화와 균형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자체의 고유한 방식을 유지하려는 부분들과 이를 통합하려는 전체 사이에 유지되는 협동과 긴장의 연속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역’에는 고정된 법칙이 없으므로 “일정한 틀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변함이 가는 바에 있을 뿐이다.” 이는 우주의 내재적 생명력을 천체의 운행질서와 합치되는 조화 혹은 화합의 차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역’ 개념은 모든 존재의 현상들에 대한 다원적이고도 입체적 조망의 결과이며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생명정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자연계의 자기생산적 혹은 자기창조적인 일련의 과정은 변통관(變通觀)으로 대변된다. 그것은

4) 『周易』, <繫辭下傳>. “天地之大德曰生.”

5) 『周易』, <繫辭下傳>. “生生之謂易.”

6) 『周易』, <繫辭下傳>. “易之爲書也, 不可遠, 爲道也屢遷, 變動不居, 周流六虛, 上下無常剛柔相易, 不可爲典要, 唯變所適.”

우주의 생명정신의 소재에 관한 함축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변통관은 시공간성의 연속적 과정에 관한 시각을 말한다. 변통이라는 말에는 변화(變化)와 소통(疏通)의 이중적 본령이 담겨있다. 변화는 특정의 상황 혹은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키며, 소통은 대립이나 상충과 같이 막힘이 없이 서로 왕래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계사전>에서는 변통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번 닫고 한번 여는 것을 일러 變이라고 하고 가고 오는 것이 다함이 없는 것을 일러 通이라고 한다.⁷⁾

변통의 양상은 인간사회의 현상들을 포함한 모든 자연계의 현실적 모습이다. 그것은 내용상 모든 존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 사물 혹은 사태는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정점에 다다르면 어느 정도의 규제 혹은 통제를 통해 질적인 측면으로 거듭 나아가야 한다.⁸⁾ 이러한 의미에서 <계사전>에서는 “바꾸어 재단하는 것을 일러 변이라고 하고 미루어 행하는 것을 일러 통이라고 한다.”⁹⁾라고 말한다. 변통의 양상에는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함께 진행되는 함축적 과정이 있다. <계사전>에서는 이 내용을 적연감통관(寂然感通觀)으로써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역은 사려가 없으며 인위가 없고 적막하여 움직임이 없지만 감응하여 마침내 천하의 연고와 통한다.¹⁰⁾

이는 우주의 내재적 생명력과 그로부터 자생적으로 창발되는 변화의 양상 즉 감응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사전>에서는 “역은 다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지속한다”¹¹⁾라고 역설한다. 이는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변통의 원칙으로 관념화함으로써 우주의 생명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주역』의 세계관에 내포된 생태역학의 성격을 알 수 있다.

2. 통관(通觀)과 인식과정

이러한 변통관에는 세계를 보는 시각 즉 ‘관(觀)’의 논리가 적용된다. 이는 우주 혹은 대자연으로 대변되는 세계의 크나큰 흐름을 투영한 상징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스스로 세계를 관찰하면서 체험하는 일종의 자기이해의 방법을 가리킨다. 자기이해의 방법은 세계를 조감하는 일련의 완결적 과정 즉 통관(通觀)의 논점이 있다. 여기에는 대상세계를 관찰하는 데에 전체적 규모의 인식적 차원이 중시된다.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는 거시적 규모이든 미시적

7) 『周易』, <繫辭上傳>.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8) 呂紹綱(1990), 『周易闡微』, 吉林: 吉林大學, p. 96.

9) 『周易』, <繫辭上傳>. “化而裁之謂之變, 推而行之謂之通.”

10) 『周易』, <繫辭上傳>. “易, 無思也, 無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11) 『周易』, <繫辭下傳>. “易,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규모이든지 간에 모두 전면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부분들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미시적으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시적으로 부분을 이해하는 경우도 부분들의 전체 즉 규모가 작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단지 요소들의 부분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관한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조망 혹은 조감은 『주역』에서 우주나 자연계에 관한 생태학적인 차원과 규모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¹²⁾ 이는 인간과 세계는 특정한 의미의 관계 속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바로 만사만물의 질서체계와 그에 수반되는 다층적 구조임을 제시한 것이다.

『주역』에서 인간이 세계를 조망 혹은 조감하는 세 가지 단계는 관물(觀物), 관상(觀象) 및 관아(觀我)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우리인간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에 복희가 천하에 왕을 할 적에 우러러보아서는 하늘에 있는 형상을 살펴보고 구부러보아서는 땅에 있는 법칙을 살펴봄에 새와 짐승의 무늬 및 땅의 마땅함을 살펴보았다. 가까이서 몸에서 얻었고 멀리로는 사물에서 얻었다.¹³⁾

자연생태계에서 하늘의 형상과 땅의 법칙 및 개별적인 삼라만상의 모습들은 복희로 대표되는 인간이 세상을 관찰하는 중요한 대상들이다. 관찰의 대상은 바로 생태학적 구조이다. 자연세계 속에서 인간을 포함하여 사물들의 존재 양상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의 현상들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세계와의 일정한 관계를 설정하며, 더 나아가 어떤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하늘과 땅의 생태학적 구조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특성의 존재와 의미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른바 ‘관물(觀物)’의 인식과정은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구조를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하는 관찰자적 시각에서 나온다. 이는 ‘취상(取象)’을 위한 인간인식의 출발점인 것이다.

인간이 자신과 세계와의 일정한 관계 즉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건은 ‘취상’의 상징체계에 있다. 그 상징체계가 바로 팔괘의 패상이다. 팔괘는 인간이 만사만물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고하게 표상화한 산물이다. 팔괘에 기초한 패효상은 바로 인간이 자연세계의 실상을 체험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수용하는 체계적인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래서 팔괘를 처음 지었고, 이로써 하늘과 땅의 신령스럽고 밝은 덕을 통하였으며 온갖 사물들의 실정을 분류했다.¹⁴⁾

팔괘는 인간이 우주 속에 있는 만사만물의 원천, 존재형태 및 그것들의 변화를 인식한 산물이다.

12) 成中英(1999), 『C理論: 中國管理哲學』, 上海: 學林, pp. 30-31.

13) 『周易』, <繫辭下傳>.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于天 俯則觀法于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14) 『周易』, <繫辭下傳>. “于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

팔괘는 하늘과 땅의 자생적 질서를 이해하거나 터득한 결과이고 점서(占筮)의 방식이 작동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인간은 이를 통해 세상의 일을 가늠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여기에서 팔괘의 제작은 인간의 관찰에서 시작하지만 인간의 궁극적 통찰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함축한다. 즉 개별현상들과 그 변화의 다양성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더 나아가 세계의 구성과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특히 “신령스럽고 밝은 덕”은 만사만물 속에 있는 음과 양의 변화의 미덕을 가리키고, “온갖 사물들의 실정”은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만사만물에 대한 전조(前兆)의 ‘象’을 얻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취상(取象)’은 주체가 심리상에서 객관적 대상에 관한 전체적(整體的) 형상을 얻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패상을 통해 대상세계의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취지를 지닌다. 그러므로 팔괘의 표징(表徵)은 인간이 대상세계를 인식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 상황을 체험하는 표상적 계기이자 매체인 것이다.

팔괘의 이러한 매체적 성격에 관한 <계사전>에서는 상(象)과 수(數)의 개념으로써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다.

뒤섞음으로써 변하여 그 數를 엮어 모은다. 그 변함을 통하여 마침내 하늘과 땅의 문양을 이룬다. 그 數를 다하여 마침내 천하의 象을 정한다.¹⁵⁾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만사만물의 모습은 ‘數’의 속성으로써 매개화되고, 이 매개화의 결과는 象의 방식으로 재현된다. 『역전』에서는 ‘數’와 ‘象’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 객관적인 원칙을 확보하는 일종의 방편으로 본 것이다. 그러므로 패상과 효상은 부호체계의 구체적인 표상성을 지닌 것으로서 모든 현상들의 변화를 상징한 산물이다. 『주역』에서 인간은 실제의 물상을 관찰하여 패상을 구성하고 또한 패상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성인이 천하의 움직임을 보고서 그 모이고 통함을 관찰함으로써 그 본받는 예절을 행하며 말을 엮어 그 길함과 흉함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효라고 부른다.¹⁶⁾

패효상의 기제는 바로 주체와 객체 사이에 특정의 관계적 방식을 가리킨다. 이 특정의 관계적 방식은 ‘그 모이고 통함을 관찰함’의 말에 담겨 있다. 이는 만사만물에서 진행되는 온갖 현상들의 다양한 변화를 포괄적으로 통찰한다는 뜻이다. ‘포괄적으로 통찰한다’는 내용에 ‘관물’의 본령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계사전>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팔괘가 되어 작은 이롭이 되고 그것을 확장하여 부류와 접촉하여 커져서 세상의 모든 일이 완결된다.¹⁷⁾

15) 『周易』, <繫辭上傳>. “參伍以變, 錯綜其數. 通其變, 遂成天地之文. 極其數, 遂定天下之象.”

16) 『周易』, <繫辭上傳>. “聖人有以見天下之動, 而觀其會通, 以行其典禮, 繫辭焉以斷其吉凶, 是故謂之爻.”

17) 『周易』, <繫辭上傳>. “八卦而小成,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이 구절은 8개의 경괘(經卦)의 괘상에서 64괘의 별괘(別卦)의 형상이 구성된다는 내용을 지닌다. 여기에서는 “부류와 접촉하여 커지는” 과정은 만사만물과 그 변화를 연역한 결과인 것이다. 팔괘는 현실세계에서 자연현상들과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적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여 도출한 ‘취상’의 결과인 것이다.

인간이 세계를 조감하는 세 가지 단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관아(觀我)이다. 관괘(觀卦)¹⁸⁾에서 ‘관’ 개념에는 대상과 효상을 구성하는 방식과 이를 통해 인간이 터득하는 삶의 체험의 문제를 인간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터득하는 올바른 시각을 담고 있다. 즉

크게 보는 것이 위에 있어 따르고 공손하여 中正함으로써 천하를 살핀다. “관은 손은 씻으나 제수를 올리지 않으니 믿음이 있어 우러러 보는 것이다”라는 말은 아래에서 살펴서 教化하는 것이다. 하늘의 신묘한 道를 살펴 四時가 어긋나지 있으니 성인이 이로써 신묘한 도로써 가르침을 베풀니 천하가 굴복한다.¹⁹⁾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의 합일을 지향하는 통관(通觀)의 자아실현의 경로가 있다. 그것은 대상을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아 내면의 인격적 함양에 힘쓰며,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상과의 관계의 소통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관의 경지에는 대상세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도 보여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선상에서 있는, 주체와 객체가 소통하는 공통의 인식방식을 함유한다. 즉 “크게 보는 것이 위에 있어 따르고 공손하여 中正함으로써 천하를 살핀다.” 여기에는 인간이 이처럼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일종의 ‘자아창조적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관괘의 원리에는 동관(童觀), 규관(闕觀) 및 관아(觀我)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동관은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근시안적인 시야를 지니는 것을 뜻한다. 규관은 자신의 집안에서의 삶처럼 자기위주의 부분적 혹은 주관적 시야를 뜻한다. 관아는 주체를 대상과 같이 놓고 나와 대상 및 그 양자의 관계를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을 뜻한다. 동관과 규관은 주체가 외부대상을 관찰하는 인식과정을 말한다면, 관아는 주체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관, 즉 자아실현의 지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관찰, 인식 및 이해라는 일련의 과정, 즉 ‘바라 봄’과 ‘보여 줌’의 통관(通觀)²⁰⁾을 통해 자아계도적이고 자아부정적이며 자아초월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²¹⁾

18) 관괘 ䷓의 형상에 따르면, 상괘는 巽卦이고 하괘는 坤卦이다. 이는 바람이 땅으로 부는 양상인데, 세상을 두루 보거나 남들이 우러러본다는 함의를 지닌다.

19) 『周易』, <象傳>, 觀卦. “大觀在上, 順而巽, 中正以觀天下. 觀盥而不薦, 有孚顒若, 下觀而化也. 觀天之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

20) 성중영은 이러한 과정을 8가지 내용으로 정리한다. Chung-ying Cheng(1995), "Philosophical Significance of Guan (Contemplative Observation): On Guan as Onto-Hermeneutical Unity of Methodology and Ontology", 『국제역학연구』, 제1집, pp. 161-163.

21) 이에 관해 정병석은 좋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는 『주역』의 관이 ‘바라 봄’과 ‘보여 줌’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돌아보고 이를 남에

따라서 ‘관(觀)’ 개념에는 대상세계를 관찰하는 데에 전체적 규모의 인식적 차원이 중시된다. 인간이 대상의 인식에는 거시적 규모이든 미시적 규모이든지 간에 모두 전면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부분들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미시적으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시적으로 부분을 이해하는 경우도 부분들의 전체라는 규모가 작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지 단지 요소들의 부분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관(易觀)의 조망은 자연계의 생태학적 차원과 규모를 이해하는 시각인 것이다.

III. 역상(易象)과 생태표상

1. 천지(天地)와 생태적 구도

『주역』의 세계관은 통관의 원리를 통해 우주 혹은 자연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얻은 인간 경험의 총체적 산물이다. 그 속에서 우주 혹은 자연계의 원리나 방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중심에는 생명의 자생력을 담아놓는 인식적 틀, 즉 ‘천지의 道(天地之道)’로 설정된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과 땅에 기운이 쌓이고 합하여 만물이 바뀌고 두터워지며, 남성과 여성이 정기를 이루어 만물이 바뀌어 생겨난다.²²⁾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우주 자체에 발생적인 유기적인 자체의 발생적(spontaneously self-generating life process) 과정을 담고 있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모든 존재의 실재(reality)이다. 실재라는 것은 우주에서 변화의 연속적 과정으로서 생명의 실체라는 측면에서는 생기(生氣)이며 생물학적 내용에서는 정기(精氣)가 된다. 이는 생명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구조는 자연현상 속에서 생물학적인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함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기(生氣)의 흐름과 같은 자연계의 순환 과정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대변되는 생태적인 조화의 양상이 있다. 이는 파악하고 이를 만사만물의 존재론적인 단초로 삼는다. 이러한 구조가 만사만물의 내재적 생명력인 이른바 모든 존재의 연속성(the continuity of being)을 지닌다.²³⁾ 여기에서는 우주의 역동적 창조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사만물은 각각 자기발생적 과정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천체의 운행질서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존재의 연속성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성과 변화의 과정은 생명의 창조적 과정으로서 가장 두드러진

계까지도 보여주는 유기철학의 인식과 실천의 통합의 성격도 이해될 있다고 본다. 정병석(2003), “周易의 觀 - 世界와 人間 自身에 대한 理解의 起點으로서의 觀”, 『철학』, 제75집, p. 11.

22) 『周易』, <繫辭下傳>. “天地網緝,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

23) Tu Wei-ming(1985), *Confucian Thought: Selfhood as Creative Transform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36-39.

자연계의 실재(reality)로 인식된 것이다.

그렇다면 『역전』에서는 이러한 역동적 연속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관건은 시공간성 개념에 있다. <서괘전>에서는 시공간성 개념을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설명한다. 즉

하늘과 땅이 있는 다음에 만물이 생성된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은 오직 만물뿐이다.²⁴⁾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는 하늘과 땅의 관계 속에서 제시된다. “하늘과 땅이 있는 다음에 만물이 생성된다”는 말은 모든 만사만물의 생성과정을 시간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은 오직 만물뿐이다”라는 말에는 만사만물의 존재과정을 공간의 위치로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늘과 땅의 구조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일련의 역동적 지속성을 함축하는 것이다. 만사만물은 생성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서로 의존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유의 내재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생명력을 지닌다. 이러한 생명력은 조화와 평형의 과정 속에서 발휘된다. 인간을 포함하여 만사만물의 생성, 변화 및 소멸의 과정은 시간의 순환과 공간의 대칭과 같은 자연계의 전체과정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형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체를 이루니 변화가 드러난다”²⁵⁾라고 말한다. 자연생태계는 시공간성의 과정을 지닌 하늘과 땅의 관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따라서 ‘하늘과 땅’의 구조적인 틀 속에서 만사만물의 존재론적 원리가 설정된다. 따라서 우주의 역동적 과정 혹은 자연의 관계적 과정은 바로 시간과 공간으로 특징화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시간의 유동성과 공간의 점유성의 역동성은 시간이 공간을 열어주는 관계 혹은 공간이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관계에 달려있다. 특히 시간의 과정은 생명이 창조되고 변화하는 활력적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서 만사만물의 상호관계라는 실제성이 성립하게 된다.

『주역』의 세계관의 핵심은 우주의 생명정신과 그 가치의 소재에 있다. 우주는 천체의 운행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역동적 과정으로서 시공간의 방식으로 표현된다. 만사만물은 신진대사의 활력을 통해 자신의 생명체계를 유지하고 지속한다. 여기에서 시공간의 개념이 형성된다. 시공간 개념은 생명이 창조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것은 시간이 창출됨에 따라 공간이 펼쳐지는 생명질서의 활력으로 작용한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통일적 질서로서,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내는 우주의 진행방식인 것이다. 시공간의 역동적 과정은 우주 그 자체가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인간에게 시공간의 가치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인식과정에 보건대, 우주가 자신의 생명력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신진대사의 활력이 바로 생명정신의 소재가 되며 그 운행의 합당한 질서가 바로 생명정신의 가치가 된다.

24) 『周易』, <序卦傳>. “有天地, 然後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 唯萬物.”

25) 『周易』, <繫辭上傳>.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

2. 건곤(乾坤)과 음양의 생명성

『역전』에서 생명력의 창발이 하늘과 땅의 구조 속에서 이해된다면, 이는 패상에서 건과 곤의 구조로 표상된다. 이는 하늘과 땅의 인식적 구조에 입각한 생명관(生命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과 곤은 易의 관문이 아닌가? 건은 양의 물건이고 곤은 음의 물건이니, 음과 양이 덕을 합하고 剛과 柔에 체가 있다.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의 일을 체득하며 신령스럽고 밝은 덕을 통한다.²⁶⁾

강과 유의 성질 혹은 음과 양의 덕성은 만사만물에 생명의 활력으로 작용하면서 건과 곤의 구조로 표상된다.²⁷⁾ 이러한 의미에서 건과 곤은 모든 존재의 생명력을 이해할 수 있는 관건, 즉 ‘역’의 관문이 된다. 특히 “그럼으로써 하늘과 땅의 일을 체득하며 신령스럽고 밝은 덕을 통한다”라는 구절은 인간이 건과 곤의 패상을 통해 모든 존재의 섭리, 즉 우주의 생명정신의 본령을 파악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주의 생명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일론적 생명관은 ‘건과 곤의 道’로 관념화된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의 道가 남성을 이루고 곤의 道가 여성을 이룬다. 건이 인식함이 크나큰 시작이고 곤이 만들어낸 만물을 이룬다.²⁸⁾

건과 곤의 구조는 바로 만사만물의 생성은 남성과 여성의 합일적 방식에 기본하며 나아가 인간의 생명의식의 측면에서는 화합의 경지 즉 道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건과 곤의 道’는 우주의 생명정신을 인식한 인간이 체현한 생명의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주역』에서는 우주에 대한 직관적 체험과 그에 따른 생명관을 중시한다. 인간은 하늘과 땅과 같은 자연계의 운행과 그 생명력을 감응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세계의 생명의식으로 고양시켰다. 우주의 생명정신은 바로 모든 존재의 역동적 변화방식을 말한 것으로서, 만사만물이 생성하고 성장하여 소멸하는 신진대사의 특징을 지닌다. 이는 인간이 하늘과 땅으로 대변되는 변화의 구조 속에서 우주의 생명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바로 하늘과 땅이 교류하여 만물이 통하며 위와 아래가 교류하여 그 뜻이 같다.²⁹⁾

26) 『周易』, <繫辭下傳>. “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27) 음양의 범주와 그 내용에 관해서는 朱伯崑(2005), 『易學哲學史』, 제1권. pp. 83-89를 참조할 것.

28) 『周易』, <繫辭上傳>. “乾道成男, 坤道成女. 乾知大始, 坤作成物.”

29) 『周易』, <象傳>, 泰卦. “天地交而萬物通也. 上下交而其志同也.”

이는 우주 혹은 자연계가 진행되는 모종의 방식을 표상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의 구체적인 사태들은 매 순간 바뀌면서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불안정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기도 한다. 이는 우주에는 역동적인 조절 혹은 조정의 기능이 작동하며 전체적으로 관계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뜻이 같은’ 자생적 질서의 흐름, 즉 자연생태계의 순환적 내용을 담고 있다.³⁰⁾ 이는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구조에 관한 일련의 생태학적 순환구조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생명의를 표현해낸 것이다. 따라서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건과 곤이 이루어지니 역이 그 가운데에 세워진다. 건과 곤이 훼손되면 역을 드러낼 수 없다. 역이 드러날 수 없으면 건과 곤은 혹시 거의 멈출지도 모른다.³¹⁾

여기에서 우주의 생명정신은 ‘역’의 개념 속에 포괄적으로 담겨있고 건과 곤의 표상구조에서 생성과 변화의 본령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역’ 개념에 담긴 우주의 생명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건과 곤의 표상구조는 성립할 수 없다. 반대로 건과 곤의 표상구조가 설정되지 않으면 ‘역’ 개념에 담긴 우주의 생명정신은 결코 수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의식은 우주의 생명정신은 ‘역’의 전일론적 사유방식에서 ‘건과 곤의 道’로 구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은 하늘과 땅과 더불어 기준이 되므로 하늘과 땅의 道를 두루 엮어놓았다.³²⁾

『역전』에서는 역의 원리를 우주전반에 대해 인간이 포괄적으로 인식한 성과라고 보고 이를 ‘하늘과 땅의 道’라는 말로 수용한다. 그것은 천체의 운행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우주의 생명정신의 구현체이며 만사만물의 존재와 그 변화의 양상에서 터득한 생명의식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계사전>에서는 함축적으로 천도관(天道觀)으로 표명한다. 즉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 道라고 하고 그것을 잇는 것을 善이라 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을 性이라 한다.³³⁾

천체의 운행은 음과 양의 상관적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거쳐 우주는 합당한 이치 즉 하늘의 도[天道]가 성립하는 것이다. 음과 양의 속성은 관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선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고 이것이 구체적 존재의 본성으로 구현될 수 있다. 모든 존재의 운동과 변화는 “한번 음이 되면 한번 양이 되는” 양상으로 환원된다. 음과 양은 움직임과 고요함의 양상을 지니며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균형과 조화의 방식을 지닌다.³⁴⁾ 음도 하나이고 양도

30) 김연재(2007), “全一論의 思惟에서 본 『易傳』의 세계관과 人間學의 地形圖 - 윤리학적 본령과 그 동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53호, pp. 13-17.

31) 『周易』, <繫辭上傳>. “乾坤成列, 而易立乎其中矣. 乾坤毀, 則無以見易. 易不可見, 則乾坤或幾乎息矣.”

32) 『周易』, <繫辭上傳>. “易與天地准, 故能彌綸天地之道.”

33) 『周易』, <繫辭上傳>.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하나라는 통일적 방식은 바로 천체의 운행질서, 즉 하늘의 도의 원리이며 모든 존재의 생명력을 함축한다. 이는 내용상 모든 존재의 생명력을 우주의 생명정신이라는 보편적 가치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러한 역(易) 개념은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양상을 포괄하는 전일성(全一性)의 생태학적 맥락에서 표상되는데, 그 표상방식은 일종의 연역적 방식, 즉 태극음양관(太極陰陽觀)을 취한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역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음양)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고 팔괘가 길흉을 정하고 길흉이 크나큰 업적을 낳는다.³⁵⁾

우주 속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원리는 본원으로부터 만사만물의 생성 및 존재의 양태까지, 즉 태극, 양의(음양), 4상(태음, 태양, 소음, 소양), 8괘, 길흉으로 드러난다. 이를 형상으로 말하면, 양과 음은 각각 “-”과 “--”을 가리킨다. 태음(太陰)은 ==을, 소양(少陽)은 ==을, 소음(少陰)은 ==을, 태양(太陽)은 ==을 가리킨다. 8괘는 건(乾, ☰), 곤(坤, ☷), 진(震, ☳), 간(艮, ☶), 감(坎, ☵), 리(離, ☲), 태(兌, ☱), 손(巽, ☴)을 가리킨다. 이것은 본래 점서의 과정 즉 시초(蓍草)의 배열에 따른 원칙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는 하늘과 땅의 문리, 즉 세상의 모든 만사만물의 본원과 생성 및 그 변화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가 모종의 본원, 즉 태극과 그 속에서 운용되는 한 쌍의 음(--)/양(-)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설괘전>에서는 이를 가족의 혈연관계로 나타낸다.

건은 하늘이니 아버지라고 부른다. 곤은 땅이니 어머니라고 부른다. 진은 처음 구해서 남자를 얻으니 장남이라 한다. 손은 처음 구해서 여자를 얻으니 장녀라고 한다. 감은 다시 구해서 남자를 얻으니 중남이라고 한다. 리는 다시 구해서 여자를 얻으니 중녀라고 한다. 간은 세 번째 구해서 남자를 얻으니 소남이라고 한다. 태는 세 번째 구해서 여자를 얻으니 소녀라고 한다.³⁶⁾

「설괘전」에서는 팔괘의 전개방식을 남성과 여성의 발생적 방식으로 표현한다. 즉 8괘에서는 4개 양의 괘 즉 건(☰, 天, 父), 진(☳, 雷, 長男), 감(☵, 水, 中男), 간(☶, 山, 少男)과 4개 음의 괘 즉 곤(☷, 地, 母), 손(☴, 風, 長女), 리(☲, 火, 中女), 태(☱, 澤, 小女)로 구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팔괘가 서로 대응하고 전환하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 여기에는 64괘를 이루는 법칙, 다시 말해 생명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건과 곤을 중심으로 하여 건과 곤을 부와 모로 하여 진과 손, 감과 리 및 간과 태와 같은 팔괘의 생성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팔괘 전체는 음과 양의 양상에 따른 포괄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건과 곤의 두 괘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34) 김연재(2010), 「복잡계 이론에서 본 주역과 그 메타적 세계관 - 동아시아적 사유원형의 모색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152집, pp. 93-94.

35) 『周易』, <繫辭上傳>.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36) 『周易』, <說卦傳>. “乾, 天也, 故稱乎父. 坤, 地也, 故稱乎母. 震一索而得男, 故謂之長男. 巽一索而得女, 故謂之長女. 坎再索而得男, 故謂之中男. 離再索而得女, 故謂之中女. 艮三索而得男, 故謂之少男. 兌三索而得女, 故謂之少女.”

되고 그 나머지 6개의 괘들은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6개의 괘들에서 진, 감, 간은 각각 장남, 중남, 소남이 되는 반면에, 손, 리, 태는 각각 장녀, 중녀, 소녀가 된다. 이와 같이 하면, 8괘는 두 가지 성별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남성의 괘로서 건, 진, 감, 간으로 구성되고 건괘가 우두머리가 된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괘로서 곤, 손, 리, 태로 구성되고 곤괘가 우두머리가 된다.³⁷⁾ 여기에는 자연생태계를 모든 생명성의 원천 및 그 연속적 방식에서 파악하고, 음과 양의 양상을 생명성의 원천으로 삼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8괘라는 현상의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이를 64괘라는 만사만물의 일련의 현상들로 연역한 것이다.

IV. 易道와 생태윤리

1. 역도(易道)와 인간관(人間觀)

인간에게 생명의 가치는 삶의 방식의 문제이다. 그것은 인간이 생명의 주체로서 자신의 내재적 생명력을 바탕으로 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우주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인간의 정신과 행위의 정당화의 문제가 있으며, 인간이 주위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치가 수반된다. 인간행위의 제문제, 즉 길흉화복(吉凶禍福)과 같은 현실적 이해관계, 진덕수업(進德修業)과 같은 도덕성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다. 특히 도덕적 인간상은 인간이 생명의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창조해가는 가치의 대상이다. 이러한 가치의 대상을 『역전』에서는 ‘역도(易道)’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역도’는 인간의 건전한 삶을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관념이다. <계사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道가 매우 커서 온갖 사물을 없애버리지 않는다. 시작부터 끝까지 조심스럽게 하면 그 핵심은 허물이 없는 것이니, 이를 역도[易道]라고 부른다.³⁸⁾

‘역도’는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이 합당하게 진행되는 도리이다. 인간이 이러한 도리에 따르면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의 도리를 깊숙이 터득하는 자각심 즉 ‘우환(憂患)’의식을 지녀야 한다.³⁹⁾ 즉 “(『역경』은) 나오고 들어가는 데에 법도로써 하고 밖과 안으로 두려움을 알게 하며 또한 우환과 연고를 밝힌다.”⁴⁰⁾ ‘역도’는 바로 우환의 자각의식이 인간의 내면세계의 본령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격체의 척도는 이러한 ‘道’를 얼마나 체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더 나아가 『역전』에서는 ‘역도’의 원리를 인간의 내면세계로 수용하여 가치론적 차원으로 전환

37) 김연재(2010), “복잡계 이론에서 본 주역과 그 메타적 세계관 - 동아시아적 사유원형의 모색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152집. pp. 103-105.

38) 『周易』, <繫辭下傳>. “其道甚大, 百物不廢, 懼以終始, 其要無咎, 此之謂易之道也.”

39) 黃壽祺·張善文(1996), 『周易譯註』. pp. 603-605.

40) 『周易』, <繫辭下傳>. “其出入以度, 外內使知懼, 又明于憂患與故.”

시킨다. 이것이 바로 삼재의 도(三才之道), 즉 하늘, 땅 및 인간의 도이다. <설괘전>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한다.

옛날에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장차 그것으로써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따르려 한 것이다. 하늘의 도를 세워 음과 양이라고 말하고, 땅의 도를 세워 강과 유라고 말하며 인간의 도를 세워 仁과 義라고 말한다.⁴¹⁾

『주역』 책은 생명정신의 당위성과 필연성 즉 ‘본성과 천명의 이치’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삼재의 道, 즉 천도(天道), 지도(地道) 및 인도(人道)로 제시된다. 천도는 음과 양의 덕성으로, 지도는 강과 유의 성질로, 인도는 인과 의의 품덕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음과 양의 덕성 혹은 강과 유의 성질을 지닌 ‘천지의 道’처럼 인도에서도 내면적 균형과 조화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천인의 도[天人之道]’라는 생명의식의 화합적 경지가 함축되어 있다. 즉 ‘본성과 천명의 이치’ 즉 우주의 생명정신을 터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론적인 필연성과 가치론적인 당위성 즉 仁과 義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인(天地人)의 틀은 생명의 그물망의 고유한 본래의 가치에 대한 인간의 자각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는가? 관건은 ‘감응’의 생태학적 용어에 있다. <단전>에서는 성인(聖人)의 인식능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하늘과 땅이 감응하니 만물이 생성된다. 聖인이 人心을 감응하니 세상이 평화롭다. 그 감응한 바를 관찰하니 하늘, 땅, 만물의 실정이 드러날 수 있다.⁴²⁾

하늘과 땅의 구조가 감응의 방식에 따라 생태학적 성격의 관계를 지니는 것처럼, 성인도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감응함으로써 세상을 다스릴 줄 안다. 감응은 하늘과 땅 및 만물의 ‘실정’을 체인하는 방식이고, ‘실정’이라는 말에는 우주의 운행질서, 그 중에서도 만사만물의 생성의 원리 즉 생명성의 법칙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실정을 감응한다는 내용에는 우주의 생명정신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는 사명감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그러므로써 세상의 의지를 통하고 세상의 일을 결정하고 세상의 의혹을 판단한다”⁴³⁾고 말한다. 인간은 ‘감응’의 체험을 통해 그 법칙을 터득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의 구조에서 인간, 온전한 인간 세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존재이다. <문언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인이란 하늘과 땅과는 그 덕을 합치하며, 해와 달과는 그 밝음을 합치하며, 사계절과는 그 순서를 합치하며, 귀신과는 그 길흉을 합치한다. 하늘보다 앞서도 하늘에 위배되지 않으며 하늘보

41) 『周易』, <說卦傳>. “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是以立天之道, 曰陰與陽. 立地之道, 曰柔與剛. 立人之道, 曰仁與義.”

42) 『周易』, <象傳>, 咸卦. “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 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可見矣.”

43) 『周易』, <繫辭上傳>. “是故, 聖人以通天下之志, 以定天下之業, 以斷天下之疑.”

다 뒤에 있어도 하늘의 때를 받는다.⁴⁴⁾

대인 혹은 성인(聖人)은 단순히 생명체로서 만사만물에 속하는 부류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우주와의 화합하는 生命의식을 지닌 존재로 간주된다. 전자가 실재로서의 인간이라면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실재이다. 우주의 生命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역전』은 실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실재를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참다운 인간 즉 완전한 인격체라면 그는 우주의 生命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세계의 生命의식을 정당하게 발현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군자는 줄어들면 부풀고 차면 비우는 하늘의 운행을 숭상한다”⁴⁵⁾라고 말한다. 따라서 『역전』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관은 生命의 가치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파악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대상전>에서는 이를 태괘(泰卦)의 함의를 해석하는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다. 즉

하늘과 땅이 교차하니 태이다. 그런 후에 하늘과 땅의 道를 꾸려내고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서로 보좌하여 그림으로써 백성을 돕는다.⁴⁶⁾

하늘과 땅이 화합하는 크나큰 원리 즉 ‘道’ 속에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영위해나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전>에서는 “문채가 밝음으로써 강건하고 중정하여 감응하니 군자가 올바르다. 오직 군자만이 천하의 뜻과 통할 수 있다”⁴⁷⁾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의 당위성과 정당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生命의식의 가치론적인 측면도 지닌 것이다.

2. 자아실현과 생태윤리

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우주의 生命에 대한 가치를 주체적으로 의식하는 데에서 나온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특징 중의 하나로 대변되는 자연계의 그물망 조직을 유기적 생명체로 보는 일종의 生命의식에서 나온다. 즉 만사만물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발전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만사만물의 관계적 방식을 인간이 인식한 결과인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生命의식 하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의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올바른 행위의 방식이 존재하며 인간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것에 정당화의 원칙을 두고 있다. 정당화의 원칙은 바로 이른바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인간행위의 동기, 결과, 영향력 등이 수반된다.

44) 『周易』, <文言傳>, 乾卦.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45) 『周易』, <象傳>, 剝卦. “君子尚消息盈虛, 天行也.”

46) 『周易』, <大象傳>, 泰卦. “天地交, 泰. 後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

47) 『周易』, <象傳>, 同人卦. “文明以健, 中正而應, 君子正也. 唯君子爲能通天下之志.”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 즉 자아실현은 도덕적 가치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주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인간정신의 윤리로 고양시킬 수 있는가? 관건은 천도와 인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역전』에서는 천도(天道)의 역량에 입각하여 인도(人道)의 강령, 즉 사덕(四德)을 제시하고 있다. <문언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元은 선의 으뜸이고, 亨은 아름다움의 모임이고, 利는 의로움의 화합이고, 貞은 일의 줄기이다.⁴⁸⁾

이는 우주의 생명성의 원칙을 원형이정의 네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인간 삶의 원리와 방식에 적용하고 있다. 元은 우주의 생명성의 원초적 가치 즉 선(善)을 체현하여 인간의 본성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어쭙을 체득함으로써 사람을 거느릴 수 있다.”⁴⁹⁾ 亨(亨)은 우주의 생명성의 원만한 가치 즉 아름다움을 체현하여 인간사회의 조화와 협조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모임을 아름답게 함으로써 예의바름에 합치할 수 있다.”⁵⁰⁾ 이(利)는 우주생명성의 올바른 가치 즉 의로움을 체현하여 사회의 조직화와 정당성을 확립한다. 그러므로 “사물을 이롭게 함으로써 의로움에 화합할 수 있다.”⁵¹⁾ 貞(貞)은 우주의 생명성의 완결된 가치 즉 지속성을 체현하여 사회의 활동과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굳셈을 바르게 함으로써 일을 할 수 있다.”⁵²⁾ 이는 천도와 인도의 관계에서 천체의 운행질서 즉 생명의 자생력을 인간의 윤리적 질서로 환원하고 이를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이해하는 단서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인간의 사덕은 우주의 섭리로서의 ‘원형이정’ 즉 우주의 생명정신이 투영된 조화(造化)의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문언전>에서 “군자는 이 네 가지 덕을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건은 원형이정이라 말한다”⁵³⁾라고 언급한다. 이는 우주의 변화의 기틀 즉 생명력을 파악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것임을 함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人道)란 우주의 생명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체현하여 나온 인격적 행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상전>에서는 건괘와 곤괘의 과상(卦象)에 따른 생명력의 구조에서 인간의 내면적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괘에 관해서는 “하늘의 운행이 굳건하니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굳세어 멈추지 않는다”⁵⁴⁾고 말한다. 건괘에서 드러나는 ‘굳건한’ 속성은 바로 군자가 자신의 덕을 끊임없이 닦아야 하는 수양의 원칙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곤괘에 관해서는 “땅의 세력이 곤이니 군자는 그림으로써 덕을 두텁게 하여 만물을 싣는다”⁵⁵⁾고 말한다. 곤괘 역시 군자가 자신의 ‘두터운’ 성품을 형성하는 데에 또 다른 측면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역전』에서 인간성의 문제는 ‘건곤의 道’의 내면적 체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인간은

48) 『周易』, <文言傳>, 乾卦.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干也.”

49) 『周易』, <文言傳>, 乾卦. “體仁足以長人.”

50) 『周易』, <文言傳>, 乾卦. “嘉會足以合禮.”

51) 『周易』, <文言傳>, 乾卦. “利物足以和義.”

52) 『周易』, <文言傳>, 乾卦. “貞固足以干事.”

53) 『周易』, <文言傳>, 乾卦. “君子行此四德者, 故曰: 乾, 元亨利貞.”

54) 『周易』, <大象傳>, 乾卦.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

55) 『周易』, <大象傳>, 乾卦.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근본적으로 우주의 생명정신과 합치되는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함축한다. 즉 “스스로 굳건하여 멈추지 않는다[自強不息]”는 원칙과 “덕을 두텁게 하여 만물을 싣는다[厚德載物]”는 원칙이 서로 일체가 되는 궁극적 단계가 참다운 인간의 모습상인 것이다. 이처럼 건괘와 곤괘의 합치가 표상하는 인간의 조화로운 속성은 인생관이나 군자관(君子觀)에 투영되어 생태윤리의 강령이 된다. 예를 들어, <문언전>에서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덕으로 나아가 업적을 닦는다. 충신은 덕으로 나아가는 바이고, 말을 하는 데에 그 성실함을 세우는 것은 업적에 머무는 바이다. 이를 줄 알고 이르는 것은 기미를 함께 말할 수 있으며, 마칠 줄 알고 마치는 것은 의로움을 함께 보존할 수 있다.⁵⁶⁾

여기에서 “이를 줄 알고 이르는 것”과 “마칠 줄 알고 마치는 것”이라는 말에는 언사와 충심과 같은 삶의 윤리적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이는 내면적 덕성이 곧바로 외면적 성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른바 “덕으로 나아가 업적을 닦는다[進德修業]”의 내용의 핵심인 것이다. 더 나아가 <문언전>에서는 이를 군자의 성품과 관련하여 말한다.

곧바름은 그 정당함이고 반듯함은 그 의로움이다. 군자는 경건함으로써 내면을 곧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써 외면을 반듯하게 하니 경건함과 의로움을 세워 그 덕이 홀로 있지 않게 된다.⁵⁷⁾

인간은 인격체로서 항상 인륜의 본질은 내적 함양과 그것의 외적 표출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즉 ‘곧바름’과 ‘반듯함’, ‘정당함’과 ‘의로움’, ‘경건함’과 ‘의로움’ 등과 같이 항상 서로 보완되거나 합치되어야 한다. 특히 “경건함과 의로움을 세워 그 덕이 홀로 있지 않게 된다”는 구절은 음과 양의 생명력의 조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곤의 원리는 인격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생태윤리에 따르면, ‘人道’의 실현은 안과 밖, 내면과 외면이 일체가 되는 인격의 완전한 체현에 달려있는 것이다. 건괘와 곤괘의 속성에서 표출되는 생명정신이 결국에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도덕윤리성의 가치라는 문제로 고양됨으로써 인도(人道)의 강령을 마련한 것이다.⁵⁸⁾

그렇다면 생태윤리의 측면에서 인도의 강령은 무엇인가? 관건은 ‘道義의 門’의 함의에 있다. 「계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역은 성인이 덕을 숭상하여 사업을 넓힌 바이다. 지식이 숭상되고 예의가 비천하니 숭상함은 하늘을 따르고 비천함은 땅을 본받는다. 하늘과 땅이 위치를 세우고 그 속에 역이 진행된다. 본성을 이루는 것이 계속 존속하니 道義의 門이 된다.⁵⁹⁾

56) 『周易』, <文言傳>, 乾卦. “子曰, 君子進德修業. 忠信, 所以進德也. 修辭立其誠, 所以居業也. 知至至之, 可與言幾也. 知終終之, 可與存義也.”

57) 『周易』, <文言傳>, 坤卦. “直, 其正也. 方, 其義也.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58) 김연재(2007), 「全一論의 思惟에서 본 『易傳』의 세계관과 人間學的 地形圖 - 윤리학적 본령과 그 동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53호, pp. 24-25.

59) 『周易』, <繫辭上傳>. “夫易, 聖人所以崇德而廣業也. 知崇禮卑, 崇效天, 卑法地. 天地設位, 而易行乎其中矣. 成性存存, 道義之門.”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과 같이 건괘와 곤괘의 속성에서 표출되는 생명정신은 인간에게 자신의 본성이라는 결정체를 이룬다. 이것이 인륜의 도리를 세우는 내용, 즉 성인이 ‘덕을 숭상하여 사업을 넓힌’ 인도(人道)의 본바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성을 이루는 것이 계속 존속하니 도의(道義)의 문(門)이 된다”라고 말한다. ‘도의의 문’은 생명정신의 구현으로서 바로 인도로 나아가야 할 관문인 것이다. 인도란 우주의 생명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체현하여 나온 인격적 행위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궁리진성관(窮理盡性觀)과 내용과 잘 맞아떨어진다. <설괘전>에서는 “도덕에 조화롭게 따르고 의로움에 잘 맞게 하며 이치를 궁리하고 본성을 다하니 천명에 이른다”⁶⁰⁾라고 말한다. 이 내용을 ‘도의의 문’으로 해석해보자면 일련의 자아실현의 과정이다. 즉 인간은 ‘진덕수업(進德修業)’이라는 내면적 수양의 단계를 거쳐서 ‘승덕광업(崇德廣業)’이라는 내면과 외면이 합일 혹은 일체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마침내는 ‘성덕대업(盛德大業)’의 궁극적天命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건곤의 원리를 통해 체득된 생명의식은 인간본성의 함양을 통해 인격수양의 완성적 차원으로 고양될 수 있다.⁶¹⁾ 이러한 의미에서 <단전>에서는 “천문을 관찰하여 때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의 관찰하여 교화하여 천하를 이룬다”⁶²⁾라고 말한다. 따라서 『역전』에서는 인격체의 자아실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생태윤리의 성격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V. 생태역학과 인문주의적 논단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 즉 인간과 그 주위에 있는 만사만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이것이 인간이 세상을 보는 눈 즉 세계관을 형성하며, 이 양자 사이에 연속성의 개념이 실재(reality)가 된다. 실재는 또한 다른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주와 자연이다. 우주는 실재(reality)의 시공간성 즉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흐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자연은 실재의 구체성 즉 만사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실재는 모든 존재들과 연속선상에서 가치의 내용을 지닌다. 그것은 인간과 만사만물의 공동의 기반이 되므로 모든 존재들은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이러한 연속적 세계 속에서 창조적 변화, 상호관계, 협력 및 통합 혹은 상호적 동일성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의 창조적 변화의 과정은 모두 세계의 창조적 변화과정과 맞물려있는 것이다.⁶³⁾

이러한 문제의식의 일환으로서 생태역학이 논의될 수 있다. 생태역학은 인간이 생명의 끊임없는 과정을 체득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실현의 총체적 활동을 성취하

60) 『周易』, <說卦傳>.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以至於命.”

61) 김연재(2007), 「全一論의 思惟에서 본 『易傳』의 세계관과 人間學的 地形圖 - 윤리학적 본령과 그 동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53호. pp. 25-27.

62) 『周易』, <象傳>, 賁卦. “天文也, 文明以止, 人文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63) Chung-ying Cheng(1998), The Trinity of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n the Confucian Personhood, in *Confucianism and Ecology - The Interrel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s*, (edited by Mary Evelyn Tucker & John Berthrong). pp. 214-216.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 혹은 천체의 운행질서는 자생력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지속성 [生生]의 원리이고, 따라서 천지의 생명력으로 표현되며 모든 존재의 생명성의 이치로 발휘된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삼라만상은 바로 이러한 이치의 구현체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운행질서의 결정체가 바로 생명이며 생명은 인간에게 존재의 본질이자 정수가 된다. 생명의 이치 혹은 생명성이 인간에게 내면화된 결정체가 본성이며 인간본성에는 우주의 생명성의 이치가 담겨있다. 따라서 생태역학에는 인간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가 담겨있다. 즉 인간은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일종의 ‘자기창조의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본고의 논제는 ‘생태역학’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재와 가치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자연생태계의 본래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역학적 사유를 이해하고, 인간이 가치의 준거를 생명공동체의 삶에 두고 이를 밝히는 작업이다. 생태역학의 논점으로는 변통관(變通觀), 천도관(天道觀), 태극음양관(太極陰陽觀), 적연감통관(寂然感通觀), 궁리진성관(窮理盡性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이들의 논점에는 생명의식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함유되어 있다. 이 문제의식을 구현하는 전일론적 방식은 세 가지 단계, 즉 역관(易觀)의 생태인식, 역상(易象)의 생태표상 및 역도(易道)의 생태윤리가 있다. 역관(易觀)의 방식은 우주가 변화하는 시공간적 이치를 인식하는 방법이고, 역상(易象)의 방식은 관찰한 내용을 상수(象數)의 척도로써 표상하는 방법이며, 역도(易道)의 방식은 이를 인간수양의 윤리적 문제로 고양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단계적으로 격상되는 일련의 전일론적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공존 관계를 위한 조화(調和) 혹은 화해(和諧)의 생명의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태역학에는 생명의식의 기초가 깔려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사상을 논하는 데에 『주역』은 인간 삶의 지혜가 반영되어있으며 인간 정신사적으로 세계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역』에 ‘인간 삶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때에, 지혜란 바로 우주 혹은 자연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얻은 인간 경험의 축적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만사만물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처럼 인식된 내용을 통해 삶의 방식을 터득한 산물이다. 또한 ‘정신사적으로 세계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말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보편적 이념인 ‘천인합일(天人合一)’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모종의 정신적 역량을 지닌다는 뜻이다. 『주역』의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생태역학의 강령이 있다. 생태역학은 인간의 생명의식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생명공동체로 인식한 결과이면서 또한 천인합일의 보편적 이념에 관한 역학적(易學的) 발상에서 나온 체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생태역학의 체계와 그에 대한 논의는 동아시아의 사상과 문화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의의와 그 윤리학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인문주의적 담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역』에서 강조하는 인간 삶의 문제는 주체의식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 혹은 인간과 자연 혹은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기반한 인간의 주관의식 문제가 있다. 그 속에는 항상 생명가치의 문제, 이해득실의 문제, 도덕행위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 생명가치의 문제는 인간의 내재적인 생명의식에서 출발하는 우주 혹은 자연계의 생명의 본체와 그 현상에 관한 존재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득실의 문제는 길흉회련(吉凶悔吝)의 가치판단언어에 기

초한 길흉화복의 공리적 결과론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도덕행위의 문제는 우주의 본체에 대한 체험에 기초한 인간 주체의 자기창조적 가치이다. 이러한 주관의식의 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생명 가치의 문제가 가장 밀바탕이 되고, 이해득실의 문제는 주위의 객관적 조건에 따른 인간생활의 현실적 행위에 관한 것이며, 도덕행위의 문제는 주체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모두 인간이 생성과 변화의 대자연 속에서 감응을 통해 생명의식을 고양하고 참다운 삶을 실현하려는 세계관에 기본을 둔다. 이러한 세계관은 생명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 삶과 그 목표의 지향성에 관건이 된다. 즉 자연으로 대변되는 삼라만상의 존재와 그 변화무쌍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존재와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역학은 우주 혹은 자연계의 실제적 구조나 사물의 배후에 있는 추상적 법칙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생태역학은 주체의 활동 즉 대상으로서의 우주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감응이나 감수에 중점을 두고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는 인간의 존재론적 의의와 그 윤리학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사유방식이 된다. 따라서 생태역학의 전일론적(全一論的) 체현에서 보자면, 인간은 실재로서의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실재가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周易』. 十三經注疏本.

朱伯崑(2005). 『易學哲學史』. 제1권. 北京: 昆侖出版社.

金景芳·呂紹綱(2005). 『周易全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呂紹綱(1990). 『周易闡微』. 吉林: 吉林大學出版社.

成中英(1999). 『C理論: 中國管理哲學』. 上海: 學林出版社.

黃壽祺·張善文(1996). 『周易譯註』.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Mary Evelyn Tucker and John Berthrong(eds.)(1998). *Confucianism and Ecology - The Interrel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s*. Harvard University Press.

메리 에블린 터커·존 버스롱 편(2010). 『유학사상과 생태학』. 오정선 역. 서울: 예문서원.

김연재(2007). “全一論的 思惟에서 본 『易傳』의 세계관과 人間學的 地形圖 - 윤리학적 본령과 그 동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53호, pp. 349-380.

김연재(2010). “복잡계 이론에서 본 주역과 그 메타적 세계관 - 동아시아적 사유원형의 모색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제152집, pp. 83-126.

정병석(2003). “周易의 觀 - 世界와 人間 自身에 대한 理解의 起點으로서의 觀.” 『철학』. 제75집, pp. 5-25.

정병석(1998). “宇宙 大家庭의 生態論的 思惟와 天人合一의 生命倫理.” 『유교사상연구』. 제10집, pp. 25-44.

최병두(2001). “심층생태학의 생물평등 및 자아실현으로서의 환경정의.” 『공간과 사회』.

- 제16호, pp. 36-68.
- 한면희(1994). “환경철학의 세계관과 윤리 - 인간중심주의 대 생태중심주의.” 『철학연구』. 제35집, pp. 327-356.
- 홍원식(2007). “동아시아 생태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양철학연구』. 제51집, pp. 255-279.
- 곽신환(1994). “유학의 유기체적 우주론.” 『기술정보화 시대의 인간문제』. 서울: 현암사.
- 김병환(2005). “유가의 생명관 - 생생, 만물일체와 ‘살림’의 생명론.” 『유교사상연구』. 제22집, pp. 307-336.
- 김세정(2003). “환경윤리에 대한 동양철학적 접근 - 유가철학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29집, pp. 57-87.
- 최재목(2006). “동양철학에서 보는 ‘생명’의 의미 - ‘생명’의 개념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46집, pp. 343-368.
- 최영진(1998). “『주역』의 인간관 : 생태학적 해석.” 『철학연구』. 제21집, pp. 109-127.
- 전병술(2003). “동양철학의 인간중심적 환경윤리.” 『중국학보』. 제47집, pp. 737-752.
- 한예원(2001). “양명학의 만물일체관에서 본 생명윤리.” 『양명학』. 제6집, pp. 129-148.
- Chung-ying Cheng(1991). *New Dimensions of Confucian and Neo-Confucian Philosoph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hung-ying Cheng(1998). “The Trinity of Cosmology, Ecology, and Ethics in the Confucian Personhood.” Mary Evelyn Tucker and John Berthrong(eds.). *Confucianism and Ecology - The Interrelation of Heaven, Earth, and Humans*. Harvard University Press.
- Tu Wei-min(1985). *Confucian Thought: Selfhood as Creative Transform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bstract

Eco-Changeology and its Life Consciousness in *Zhou-yi*

Kim, Yon Jae*

The essay is focused upon ecologically approaching to the world-view of Zhou-yi in the context of comprehending a mode of life existence. Its foundation of methodology I call "eco-changeology". "Eco-changeology" is a thinking way concerning a life spirit of the universe and accordingly the appearances of changes in the ecological circle of Nature. It means to comprehend the thinking way of changes attached attention to the time-space scheme of the universe and its embodiment, namely, the intrinsic dynamic of a circle of ecological Nature, and to explicate that the goodness of life community is a criterion of human existence and value. It purposes that the ecological circle of Nature is regarded as a stream of self-generating order to be escalated into a harmonious dimension of life consciousness. Therefore, if ecology is a science concerning the harmonious relationship of the environment of Nature and human beings, then, "eco-changeology", furthermore, has a methodology of searching for an ontological status of human beings and its axiological understanding in this relationship. The views of "eco-changeology" are such as that of changing penetration, of heavenly way, of supreme ultimate and yin-yang, of calm response, of exhausting the principle and extending the human nature, etc. These views include an issue how we can understand life consciousness. The unitary way of concretizing the issue has three steps: ecological recognition in the penetration of change, ecological image in the symbol of change, and ecological ethics in the way of change. These steps have a series of totalistic process. From the all-comprehensive viewpoint of "eco-changeology", it seems to me that a human being is a human being as reality and simultaneously a reality as a human being. Therefore, "eco-changeology" does not aim to investigate or describe human beings in relation to a structure of food chains in the ecological circle of Nature, but to comprehend the stage of experience that human beings understand their own lives in such an ecological network as the revolving order of Nature. "Eco-changeology" is a

* Assistant Professor, the 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methodology stemming from the conception of changes concerning a universal idea of “the unity of the heavenly and the humane,” and results from life consciousness of recognizing the ecological circle of Nature as life community. It is consequent that “eco-changeology” is a humanistic discourse to understand the ontological significance of a human being and its ethical fundamental in the East-asian thought and culture.

■ 논문투고일 : 2011년 11월 17일, 논문심사일 : 2011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6일